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원칙이 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전남도당 운영과 함께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면 광주시장-전남도지사 및 양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4자 연석회의’ 서 논의하자”

- 전남도당 위원장에 도전하게 된 배경과 향후 운영방침을 밝혀달라.
- ▲엄중한 시기에 새롭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긴장과 집중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아픔도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강력한 방역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이끌어 내야 한다.

발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에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마사희 등 42개의 기관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논의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전남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의기투합해 지역 의사 정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보에 앞장서겠다.
- 지난 4·15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 ▲저는 전남 중남 해안지역의 관광산업 부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장흥-고흥 간 교량을 건립하고, 전남 중남해안지역이 관광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력을 되살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오늘의 김승남 위원장이 있기까지 삶의 원천은 무엇이고, 향후 정치적 지향점에 대해 듣고 싶다.
- ▲제 삶의 원천은 어머니같은 농어촌이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60-70년대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열, 90년대 시장개방 이후에는 농어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화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지만 농어촌도 도시에 비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품화와 인구감소가 그 결과다. 농어촌은 이제 더 이상 시장논리로 대처해서는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 공익적 가

군공항 이전문제 생존권 걸린 지역민 결정 가장 중요 농어촌활성화 정치적 과제...공공의료기관 확보 앞장

이 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영이 기본이다. 또 선거단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강한 전남도당, 뿌리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 지역의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남도당으로 반드시 이끌겠다.

장기적으로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도간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를 줄이고, 현안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와 경북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학계·경제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우리 지역의 통합 문제 역시 민간이 주도하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의와 함께 맞물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는 미래전남 프로젝트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문제는 지역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와 계획이 제시되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 전남도당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임기 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 ▲그동안 전남은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보면 서부권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정치적 균형을 잡는 것에 일차적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동부권에 도당 제2당사나 연락소를 우선 두는 것을 검토했으나, 정당법상 제약이 있어 법 개정안 발의해둔 상태다. 또한 청년·여성당원 등 정치신인 발굴과 당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당 연수원 설치도 추진 중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개발이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전남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좋은 정책을

- 최근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그 이유와 내용은.
-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 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남은 0.44로 향후 소멸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불균형이 고착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 광주·전남 통합

-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해법이 있다면.
- ▲지난달 28일 우여곡절 끝에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됐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구체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왔던 것이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 조건을 들여다 보면 과연 광주시와 국방부가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미래,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군공항

-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 ▲지난 4일 당정이 의료계와 진료 복귀를 두고 합의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까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일로 30년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대 유치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이 크다. 다행히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와 병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8곳 '지방소멸 위기' 농어 청년·여성당원 등 정치 신인 발굴...당원교육 강화도

초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법안, '고향 사랑 기부제',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등 농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임하는 자세와 주력할 부분을 밝혀달라.
-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어축산민들의 피해가 컸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 이계호·김회재·서동용·소병철·윤재갑·주철현 의원 등이 전남지역 호우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원안규명과 함께 피해액 산정방식과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당정에 요구했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지원금은 1,600만원이며, 소 한 마리당 지원금은 겨우 10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차체에 현실적이지 못한 피해보상에 대해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자연재해 예방활동과 피해구제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침체된 농·어·축가 활

치 관점에서 평가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 래야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어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다. 이와 함께 이번에 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상 반드시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됐다.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강병은 기자

약력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
-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 ▲제19대 국회의원(고흥·보성)
- ▲민중통합당 수석사무총장
-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 ▲제21대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2020 광주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평소 살던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돌봄전화 ☎062-350-4000